

#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

최 소 영\*\*

## < 次 例 >

- I. 서론
- II.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
- III.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사 교육의 실제
- IV. 결론

## I. 서론

교육과 그에 대한 논의는 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목표의 달성 여부로 귀결된다. 교육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며 교육의 방법 또한 달라지며, 목표가 현재 교육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국어교육으로써 학습자가 우리말과 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어의 문화<sup>1)</sup>를 이해하며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에

---

\* 이 논문은 2011년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연구는 한국어문법교육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2011.2.19.)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정 토론자로서, 연구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였던 부분을 짚어 주신 고려대학교 최석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부족한 논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까지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sup>

그런데 현재의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어 자체의 발전을 위한 교육 내용이 다소 소외되고 있다. 또한 문화 창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전통 가치나 선조들의 생활 등에 대해서는 아직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로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9학년에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sup>3)</sup>가 성취기준으로 명

---

주신 세 분의 심사 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객원 연구원.

- 1) ‘문화’라는 개념은 워낙 광범위하여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찍이 김대행(1998)은 ‘문화’의 개념에 대해 천착해 왔는데, 김대행(2006: 13)에서는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은 실상이 모호한 채로 긍정적 의미를 함축하여 문화를 지적 세련으로 보는 관점에 기울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인지 목표에서는 강조하고 내용에서는 무시해지는 것이 그 간의 실정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문화는 ‘삶의 방식’으로서, 지적 세련에 국한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민현식(2003ㄱ)에서는 인류학 연구인 한상복 외(1991)와 국어교육 연구인 김대행(1998)의 논의를 수렴하여,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의미 작용의 총체’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적 세련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廣義)로서 문화를 정의한 이 연구들의 관점을 받아들여, 김대행(2006)을 따라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넓게 정의한다. 민현식(2003ㄱ)에서 풀이된 ‘인간 집단의 생활’이나 ‘사회적 의미 작용’ 등은 모두 ‘삶’에 포섭되는 일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를 목표로 삼았다.
- 3) 한편, ‘언어’와 ‘문화’를 합쳐 하나의 개념어로 보아 합성어로 쓰는 ‘언어문화’라는 용어를 다수의 논의(김대행, 2003; 성기철, 2004; 왕한석, 2009 등. 민현식, 2003ㄱ에서는 ‘국어문화’라는 용어를 썼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어떠한 관계로 결합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한 연구자의 논의에서도 여러 가

시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성취기준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어교육 전반에서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국어 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국어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이 아닌 ‘국어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문화를 선별하여 범주화한 후, 각 범주별로 기존 국어교육의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과 내용을 재배치·개편하는 방향이다.<sup>4)</sup> 다른 하나는, 현재 국어교육의 영역과 내용을 유지하되 국어 문화의 이해와 창조를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전자는 ‘국어 문화’를 교육 내용 체계화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접근, 후자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며 국어 문화의 비중을 늘리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국어 문화의 내용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전자가 궁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기준이 체계 개편의 일차적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적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후자의 관점에서 국어 문화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탐색하여 그 실재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어휘사(語彙史)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통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자주 국어 문화 교육의 대상이 되어 온 문학 텍스트

---

지로 정의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을 일단 보류하고, 국어 교육의 장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문화에 대한 논의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어 문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 4) 박창균(2009), 박인기·박창균(2010)은 이와 같은 접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박창균(2009)에서는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감성의 범주, 신중의 범주, 겸양의 범주(이상 ‘화자’ 중심 언어 문화 소통 맥락) 및 경애의 범주, 허용의 범주(이상 ‘청자’ 중심 언어문화 소통 맥락) 및 친교의 범주, 유대의 범주, 해학의 범주, 풍속의 범주(이상 ‘관계’ 중심 언어 문화 소통 맥락).

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광고 텍스트 등도 훌륭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개별적인 어휘와 그 어휘의 변화 역시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더 논의하도록 한다.<sup>6)</sup>

## II.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

국어교육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휘사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어 문화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국어’와 ‘문화’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국어교육이 국어의 발전을 위해 깊어져야 하는 책임은 이문규(2003)에서 강조된 바 있다. 이문규(2003: 384-385)는 언어 교육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미래 뿐 아니라 대상 언어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특히 모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일과 그 언어 자체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언어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바라볼 때, 지금의 우리 국어교육은 학습자 쪽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국어의 발전에 대한 배려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본고는 국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어휘에 대한 앎과 그를 통하여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육이 일조한다고 본다. 어떠한 말의 소리와 표기만을 안다고 하여 한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신명선(2000), 최인자(2001), 정현선(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신명선(2011)에서 지적하였듯이, “현 국어교육학 내에서 어휘 교육 내용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진” 하다. 어휘사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므로, 지면을 더 할애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어휘가 맥락에 따라 가지는 다양한 의미가 보존되어야 언중이 갖가지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의미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써 그 언어의 표현력이 커진다. 그런데 다양한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녹아 있는 언중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결국에는 변화하는 연속체의 어느 한 지점을 짚은 것이 되므로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친 변화까지 살펴볼 때 국어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국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키움으로써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도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며, 어휘사 교육은 이에 기여할 수 있다. 박인기(2002: 88)에 따르면, 문화적 문식성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새로운 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능력이며, 주체적인 수용과 창조의 태도 역시 더욱 중요해진다.<sup>7)</sup>

언어의 여러 단위 중에서 어휘가 특히 사회와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sup>8)</sup> 구본관(2008: 80)에서 언급하였듯이 어

7) 이 문제는 새로운 문화와 더불어 수입되는 외국어 사용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8) 구본관(2008: 81)에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명제는 어휘에 대해서는 거의 언제나 참이다. 모든 어휘는 현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많은 적든 만들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휘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산물이며 역사를 투과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어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휘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sup>9)</sup> 문화와 어휘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접근은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볼 수 있게 해 주는 점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처럼 어휘사 교육은 국어의 발전과 문화적 문식성 발달을 이끌고, 이는 결국 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언어생활의 아주 간단한 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예 1) ㄱ.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윗사람을 높이는 문화와 안 좋은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아프다’ 대신 ‘편찮으시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 수 있고, 문화를 앎으로써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떤 말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어떤 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말을 사용하고 대하는 학습자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어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의 영향은 이해의 차원뿐 아니라 표현의 차원에까지 미친다. 높임법을 깎듯하게 쓰는 정도가 점차 약해져 가면서 ‘편찮으시다’를 썼을 자

9) 구본관(2008)에서는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을 ‘문화 교육에 도움이 되는 측면,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는 측면, 기능 교육에 도움이 되는 측면’의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편, 이기연(2009)에서는 어휘 교육에서 어휘에 대한 통시적 관점을 취하면 과거의 생활사 및 정서와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됨을 논의했다.

리에 (예 1ㄴ)처럼 ‘아프시다’를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어를 높이는 조사 ‘께서’를 대다수의 상황에서 ‘이’가 대체하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명사(名辭)는 문화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지만, 명사가 아닌 말들조차 문화의 변화와 함께 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sup>10)</sup> 따라서 어떤 학습자가 글을 쓸 때, 예전보다 높임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문화지만 ‘편찮으시다’나 ‘께서’를 선택함으로써 높임의 뜻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프시다’나 ‘이’를 선택하여 씀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덜고 친밀한 느낌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말도 문화적 문식성에 기반하여 표현하고 점검함으로써 국어의 다양한 표현은 살아나게 된다.<sup>11)</sup>

삶의 모습과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어휘사에 대한 교육은 한 어휘의 용법과 그를 둘러싼 과거의 문화는 물론 현재의 용법과 문화까지 생각해 보게 하여, 국어의 발전 및 문화의 이해와 창조를 이끄는 훌륭한 교육 내용이 된다. 국어교육의 이념에 대한 논의인 이문규(2003: 384-385)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그 결과는 다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당연히 그러한 변화·발전의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방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학습자가 국어의 변화에 대해 일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 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 될 것이다.”

10)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 즉 명사도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명사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동사와 형용사가 생기기도 하는데, ‘-하다’나 ‘-되다’ 등의 접미사를 이용하여 동사와 형용사가 파생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문법 형태소는 변화가 느리고 적은 편이다.

11) 특히 중등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표현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강조한 바도 어휘사 교육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학습자는 어휘사 교육을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는 국어교육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Ⅲ.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사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의 실재를 보이도록 한다. 어휘사 교육의 원리를 앞서 제시하고, 개별 어휘사의 예 세 가지로써 교육 내용을 구현할 것이다.

#### 1. 어휘사 교육의 원리

먼저,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되는 어휘사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이 되는 어휘사의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교육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어에 대한 통시적 교육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온, 국어사의 시대 구분<sup>12)</sup>에 따라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의 범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각 시대가 대표하는 문화적 특성과 시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보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의 국어사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 문화의 범주를 먼저 나눈 후<sup>13)</sup> 각 범주를 대표하는 어휘사를 선별

12)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홍윤표(1995)가 참조된다.

13) 앞서 언급하였듯이, 박창균(2009), 박인기·박창균(2010)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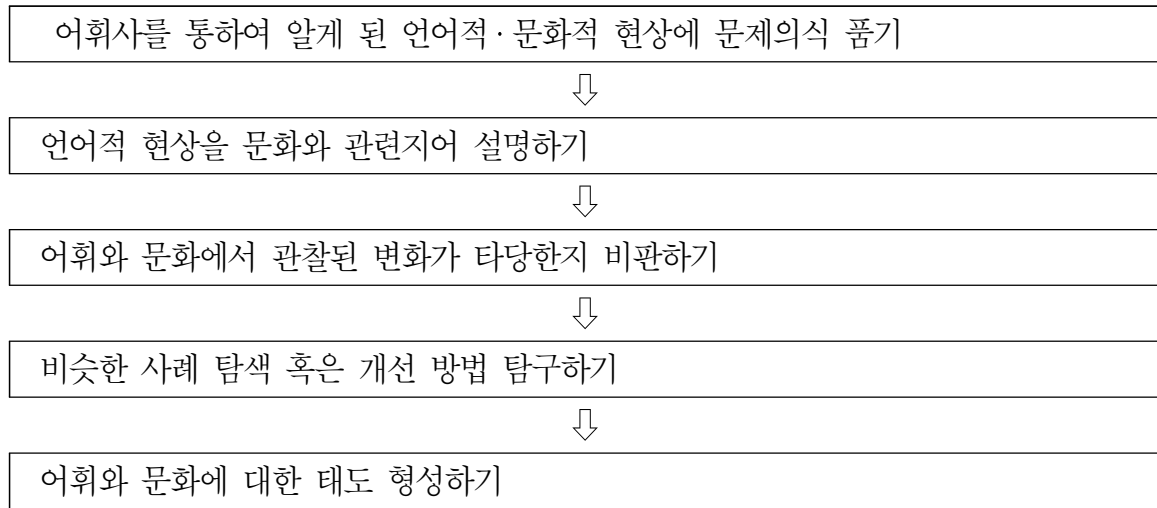
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 있다. 학습자의 흥미나 발달 단계에 맞는 범주부터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국어 문화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면 국어 문화의 범주화에 따른 어휘사의 범주화 역시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어 문화를 범주화하는 것은 본고의 초점 밖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어휘사를 나누되, 근대국어의 어휘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문화의 격변기로 새로운 문물이 급격히 유입되어 이전 시기와의 차이가 크고, 한편으로는 현대 문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기이다. 또한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찰의 거울이 될 만한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국어의 어휘 역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어휘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예로 이어지는 2항과 3항에서 ‘양복(洋服)’과 ‘자전거(自轉車)’의 어휘사를 살펴본다. 또 4항에서는 생활 문화를 잘 보여주는 어휘로서 ‘식사(食事)’의 어휘사를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어 문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어휘사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은 김광해(1995) 이래로 논의되어 온 탐구학습<sup>14)</sup>을 수정하여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의 단계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되, 개별 어휘사에서 특히 부각되는 면에 주목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14) 김광해(1995: 229-231)에서는 탐구학습의 단계로 ‘탐구 목표(문제)의 정의,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결론 도출,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를 제시하였다.

〈도표 1〉 어휘사 교육의 일반적 모형



## 2. ‘양복(洋服)’의 어휘사 교육

개화기에 서양 문화가 대폭 유입되면서 새로운 문물을 지칭할 어휘가 필요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같은 필요로 ‘양(洋)-’이라는 접두사가 널리 쓰이게 되어<sup>15)</sup> ‘양복(洋服)’이라는 새로운 어휘가 생겨났다. ‘양복’은 개화기 문헌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견된다.

- (예 2) ㄱ. 그져 머리작고 양복만 햐여서 기화가 될 것 곳흐면 뉘가 기화햐기 어렵다 햐리오 (1906 경향신문)
- ㄴ. 단순시총부장 리용구 씨는 회원 스십명을 양복햐고 총을 들녀서 령술햐고 순햐햐다더라 (1904 대한매일신보)
- ㄷ. 농림스장 변국선 씨의 양복 주머니 속에 잇는 금전을 도적햐다가 (1904 대한매일신보)

15) 김형철(1997) 참조. ‘양복’ 외에도 ‘양궁(洋弓), 양악(洋樂), 양옥(洋屋)’ 등 ‘양-’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많다.

- ㄹ. 관인들이 리발히고 양복흔 이 만흐니 (1906 경향신문)
- ㅁ. 엇던 양복흔 자ㅣ 혼 손에는 룡혈포를 가지고 혼 손에는 칼을 가지고 돌입햐야 (1906 경향신문)

(예 2ㄱ)의 ‘양복’은 문자 그대로 ‘서양식 의복’을 가리킨다. 남성복(男性服)이든 여성복(女性服)이든 관계없이 서양식 의복이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남성이 입는 서양식 의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 2ㄴ)의 ‘리용구 씨’나 (예 2ㄷ)의 ‘변국선 씨’는 그 이름으로 보아 남성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 20세기 초기, 대부분의 관리는 남성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참조하면 (예 2ㄹ)의 ‘관인들’ 역시 남성일 것이다. (예 2ㅁ)의 예에서도 룡혈포와 칼을 가지고 돌입하는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연상된다.

이상을 보면 본디 ‘복(服)’ 자체가 남성복으로서의 외연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양(洋)-’이 붙은 ‘양복’은 남성복으로 이해되는 문맥에 더 자주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복’이 여성복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개화기 국어에 이어 현대국어에서 ‘양복’이 어떤 뜻으로 쓰는지 남북한이 사전에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예 3) ㄱ. 양복<sup>01</sup>洋服 [양복만-봉-] 「명」 「1」 서양식의 의복. 『중국 대륙의 바람이 서풍(西風)에 몰리기 시작하는 조선 말기에 이르면 조관(朝官)의 복색이 {양복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2」 남성의 서양식 정장. 『{양복을} 갖추어 입다/{양복을} 맞추다/어두컴컴해질 무렵에 세련된 {양복} 차림의 노신사와 오십 대쯤으로 보이는 부인이 찾아왔다. 《황석영, 한 씨 연대기》/몸에 꼭 맞는 {양복}, 반듯하게 맨 넥타이 그리고 잘 매만진 머리가 은연중 사내의 빈틈없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조해일, 왕십리》§ #참; 한복. (표준국어대사전)

- ㄴ. 양복01<23> 「명」 서양식의 옷이라는 뜻으로 “천으로 만든 현대식의 겉옷”을 통털어 이르는 말. ㄱ -과 조선옷. § 【89】 . 洋服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격 =양복에 갓 쓴 격. 양복에 갓 쓴 격 “서로 어울리지 않고 모양이 우스움”을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자 각각의 뜻을 그대로 풀이한 의미가 제1의미로 올라 있다. 제2의미는 남성복으로서의 뜻이며, 이때는 [의복]보다 외연이 좁은 [정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제1의미에 해당하는 뜻만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양복’을 [남성의 정장]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개화기 자료 (예 3ㄴ)에서의 ‘양복’도 [정장]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화기에서의 뜻이 현대의 ‘양복’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복(洋服)’과 유사한 뜻이 있지만, ‘양복’보다 훨씬 더 나중의 시기에 등장하며 출현 빈도가 더 낮은 ‘양장(洋裝)’도 나타나는데, 여성복에만 쓰였다. 여성복으로서 ‘양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리하여 볼 수 있다. ‘양복’이 문자 그대로의 제1의미와는 달리 주로 ‘남성의 옷’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니, 그것과 구별되는 여성복으로서의 새 어휘가 필요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양복’과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여성복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한자로 ‘장(裝)’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장(裝)’에는 ‘옷차림을 하다’와 같은 중성적인 뜻도 있지만, ‘꾸미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꾸미다’는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써 온 말이었으므로 여성복을 나타내는 한자로 적합한 면이 있다. 즉 ‘양장’은 ‘양복’과 성적(性的) 구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등장하였으므로 당연히 ‘양

복'보다 늦은 시기에 문증(文證)되는 것이다.<sup>16)</sup>

현대국어에서 '양장'이 어떤 뜻으로 쓰는지 남북한의 사전에서 검토하면, 둘 다 개화기 자료에서 발견되는 뜻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으로서 뜻풀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예 4) ㄱ. 양장05洋裝 「명」 「1」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서양식으로 꾸밈. 또는 그런 옷이나 몸단장. ¶{양장} 차림/그 여자는 오늘따라 투피스 차림으로 {양장을} 했으며 화장을 얹게 한 모습이 꼭 여학생 같아 보였다. <<황석영, 한 씨 연대기>>/일부러 {양장에다} 하이힐을 신고 스틱처럼 파라솔을 손에 들었다. <<유주현, 대한 제국>> § 「2」 책을 서양식으로 장정함. 또는 그 책. 철사나 실로 꿰매고 두꺼운 종이나 형짚, 가죽 따위를 싸 붙인다. ¶{양장} 제본. §양장-하다. # \$ 「동」 「1」 =>양장05 [1]. ¶그녀가 평소 입던 한복을 벗고 {양장하고} 있었음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문구, 장한몽>>/연초록 원피스를 입은 순실이의 {양장한} 스타일을 뜯어보면서... <<염상섭, 위협>> § 「2」 【...을】 =>양장05 [2]
- ㄴ. 양장01 「명」 ① (여자의) 조선옷차림이 아닌 양복옷차림이나 거기에 어울리는 몸단장. | 옥희는 양장보다는 조선옷을 차리고 나서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 ② 지난날의 서양식 책 매는 방법처럼 책가위를 가죽이나 레자천 같은것을 씌워서 꾸미는것. 洋裝 양장하다.# \$ 「동」 (자.타) | 선비는 술을 행행 가시며 옥점의 분바른 얼굴과 양장한 몸맵시를 생각하였다. <<장편소설 “인간문제”>> §

이상의 '양복'과 '양장'에 대한 관찰에서, '양장'은 '양복'보다 문헌에 늦

16) '양복-양장'은 새 어휘를 만들어내는 동인(動因)과 기존에 있는 어휘의 구조가 새 어휘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므로, 단어 형성법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박혜진(2010)에서 다루었다.

게, 낮은 빈도로 나타나며 무표향(unmarked form)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양복’은 성별 구분을 넘어선 의미로 [서양식 의복]이라는 무표향으로 쓰이기 시작한 동시에 [남성이 입는 서양식 옷]을 가리키는 의미로 등장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적으로, 많이 언급될 대상이었기 때문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명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먼저 문화와 역사의 전면에 나섰던 것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문헌에 등장할 만한 비중을 가진 사건이나 장면에 남성이 더 먼저, 더 많이, 양성 포괄적 명칭(즉 무표향)으로 언급되어온 것도 익숙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복장에 대한 명칭에서조차 차별적 등장과 빈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문화가 새로운 문물에 대한 명칭과 그에 대한 언중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국어에서도 무표향(unmarked form)은 남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 5) ㄱ. ○○ 고등학교, 의사, 배우, 비서, 人

ㄴ. ○○ 여자 고등학교, 여의사, 여배우, 여비서, 女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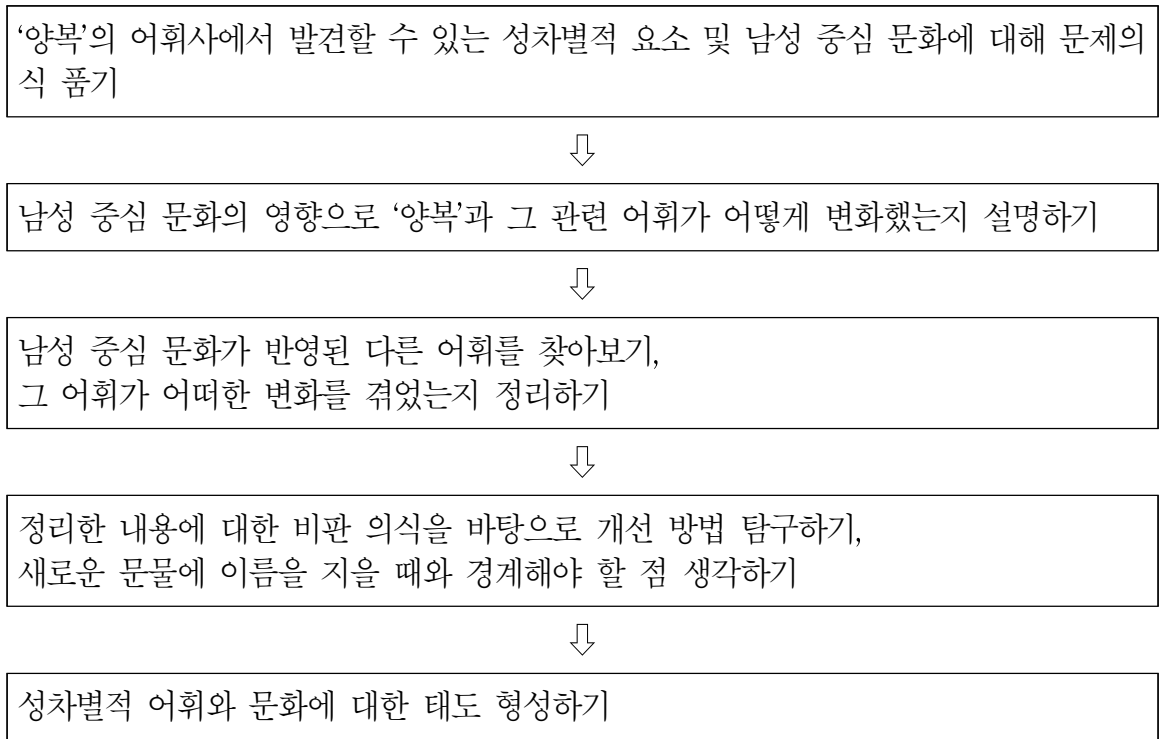
(예 5ㄱ)의 ‘○○ 고등학교’는 [남녀 구별을 초월한 무표적 고등학교]나 [남녀공학 고등학교]라는 뜻과 [남자 고등학교]라는 뜻을 모두 가진다. 후자를 지칭하기 위해 이름을 붙일 때는 굳이 ‘남자’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지만, [여자 고등학교]를 지칭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예 5ㄴ)처럼 ‘여자’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것은 다른 한자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7)</sup>

17)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나타난다. 영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man’은 [남자]로서의 뜻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일반 명사의 뜻까지 가진다. ‘policeman, fireman, man of letters’ 등에서의 ‘man’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 5ㄱ)에는 ‘양복’에서와 같이 ‘일반 명칭에는 [남성]이라는 함의가 있음’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 만드는 표현에는 성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으므로, 이와 같은 예들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양복’의 어휘사는 학습자가 양성평등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한 표현으로 국어를 다듬으며 국어와 문화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도표 2〉 ‘양복’의 어휘사 교육 (1)



쓰인다. 심지어 [여성]을 지칭하는 말인 ‘woman’ 역시 ‘man’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도 ‘人’과 ‘女人’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이다. [남자]로서의 ‘man’이 먼저 등장하였는데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사고로 [인간]으로 확대된 뜻까지 가지게 된 것인지, [인간]으로서의 ‘man’이 먼저 등장하였는데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별은 남성이라는 생각에서 [남성]이라는 좁은 뜻까지 가지게 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양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유(固有) 복장을 지칭하는 ‘한복(韓服)’은 ‘양복’이라는 어휘가 발견되는 초기 문헌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 ‘한복’은 ‘양복’보다 더 늦은 시기인 20세기 초에 문헌에서 발견된다.

(예 6) (허) 그릇코보면 첩용처에 등달것 무엇잇겟느 (우) 또 한복홀일이 잇  
데 집안을 멀썩 하게히 논는것이지 서울티싱이니 무엇이니 흐는  
계집들은 그거쳐흐는 집을보면 평승에 비질흔번아니하고 마루  
우헤 방문압헤 신버셔놋코 (명월정 56-57)

‘양복’보다 ‘한복’이 더 늦은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복’이라는 명칭의 필요성이 ‘양복’이 생긴 이후에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18)</sup> 새로운 문물을 지칭할 명칭은 급히 필요하므로 새 명칭을 먼저 만들고, 기존에 있던 문물에 대한 명칭은 새 명칭과 구별하기 위해 그 후에 만들었을 것이다. 또 기존에 있던 문물에 대한 명칭은 개화기 당시에는 그리 널리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새 문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존 문물에 대한 명칭이 마련되었더라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새 물건에 대한 언급이 기존 물건에 비하여 더 잦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도 그러하듯 말이다.

이러한 예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어휘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어휘사가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문화적 생경함, 호기심 등을 현재의 학습자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알려 줌으로써, 학습자가 이전 시기의 국어를 친근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데 일조한다.

18) 김형철(1997: 203)에 따르면, 접두사 ‘양(洋)-’이 발달하게 되자, 반대로 고유의 것을 나타내는 ‘국(國)-’이나 ‘한(韓)-’이 발달하여 ‘국악(國樂), 국궁(國弓)’이나 ‘한복(韓服), 한식(韓食)’ 등에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양복’ 대신 ‘수트(suit)’라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디 영어의 ‘suit’는 ‘남성 셋 갖춤 정장 한 벌’ 또는 ‘여성 상하한 벌’의 의복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트’가 남성 정장만을 가리킨다. 여성용 원피스에는 이미 외래어로 자리 잡은 영어 단어 ‘드레스(dress)’가 흔히 쓰이고 있었지만 남성 정장을 ‘양복’이 아닌 ‘수트’라고 가리키는 것은 최근에 꽤 많이 보인다. 이는 외래 문물에 대하여 이미 써 온 우리말이 있더라도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 특히 새로운 문물에 민감하며 유행을 타는 문화에서 두드러진다. 외국 문화를 한국문화화(韓國文化化)하는 단계 없이, 외국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리키는 말 중에는 특히 외국어가 많은데, 이것을 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는 과정을 위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외국어를 접했을 때 ‘스크린도어(screen door)’처럼 그것을 받아들여 국어에서 그대로 쓸 것인지, ‘SMS’를 ‘문자’로 일컫는 것처럼 국어에 이미 있는 다른 말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은 다듬은 말이 언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결과 이상의 의의가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는 과정에서 새로 유입된 말과 그와 관련된 문화를 이미 있는 우리의 문화와 비교·대조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sup>19)</sup>

따라서 외국어 수용의 문제는 교육의 국면에서 학습자 나름의 주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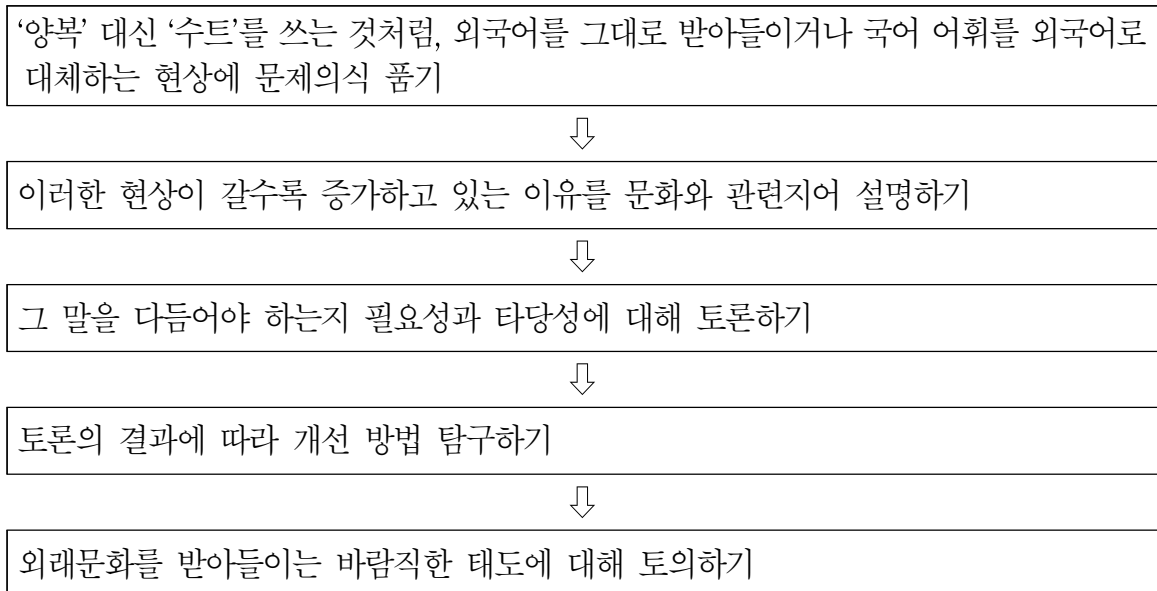
19)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일찍이 민현식(1996: 104)에서 강조한 방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민현식(1996: 104)은 “세계화 추세와 조기 영어 교육의 상황에서 모국어 화자들, 특히 아동들에게 영어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영어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어 문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은 국어 문화론에 바탕을 둔 국어 교육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인 태도를 형성도록 이끄는 내용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매우 생산적으로 나타나는 조어 방식인, 영어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접미사 ‘-하다’를 붙여 용언을 만드는 방식도 덧붙여 교육할 수도 있다. 국어에 영어를 섞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국어 단어가 있는데도 영어 단어를 쓰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 7) 심플(simple)하다, 스마트(smart)한 학생, 어메이징(amazing)한 여자

(예 7)은 어느새 ‘단순하다’, ‘똑똑한’, ‘놀라운’ 등과는 다른 의미를 환기시키고, 쓰이는 맥락도 달라졌다. 의미가 달라졌으니 국어의 어휘로 인정하는 방향이 타당한지, 아니면 말다듬기를 거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면 학습자 나름의 주관과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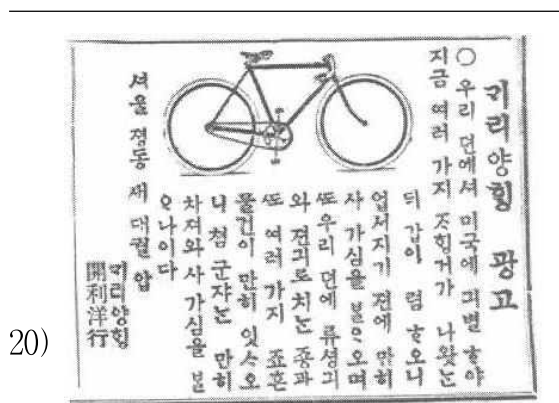
〈도표 3〉 ‘양복’의 어휘사 교육 (2)



### 3. ‘자전거(自轉車)’의 어휘사 교육

‘자전거’는 ‘양복’과 마찬가지로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한 신문물에 대한 어휘면서 현재의 학습자에게도 매우 친숙한 어휘이다. 1895년 ‘국한회어’에서는 중국식 한자어를 그대로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自行車’를 ‘자행거’로 표기하고 있고, ‘독립신문’의 1899년 7월 13일 광고<sup>20)</sup>에서는 ‘즈헝거’ (自行車)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1)</sup> ‘독립신문’의 기사에서 “일본 황태자 던하는 근일에 미국 즈헝거를 사서 탄다니 일본도 차차 기명이 되야 가나보더라”라는 문장도 보인다. 그런데 1906년 ‘경향보감’과 이후 문헌 등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즈헝거’뿐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인 ‘즈전거’ (自轉車)도 쓰이더니, 어느새 ‘자행거’는 자취를 감추고 ‘자전거’만 살아남게 되었다.

(예 8) ㄱ. 오는 인력거세오 룽은 즈헝거세오 칠은 수레세오 (경향보감 1:



독립신문에 실린 광고 자료이다. 이와 같은 매체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면 학습자가 생생한 국어 자료를 접함으로써 당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어휘사 교육이 텍스트를 활용하는 국어 문화의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다.

21) 1940년대 소설인 이기영의 “봄”에도 ‘자행거’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쓰인 ‘자행거’는 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쓴 말이고 언중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닐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어에서는 현재도 자전거를 ‘自行車’로 가리킨다.

99)

- ㄴ. 또 황실과 관텅에서 쓰는 교군과 인력거와 즈전거와 수레는 다 디방세를 내지 아니흐느니라 (경향보감 1: 108)
- ㄷ. 살죽경 쓰고 인력거나 자행거 타고 (안국선, 금수회의록 64)
- ㄹ. 넓고넓은길에 마츰 자동츰 자전거는 여긔셔도 쓰르를 저긔셔도 쓸々호고 (최찬식, 추월색 249-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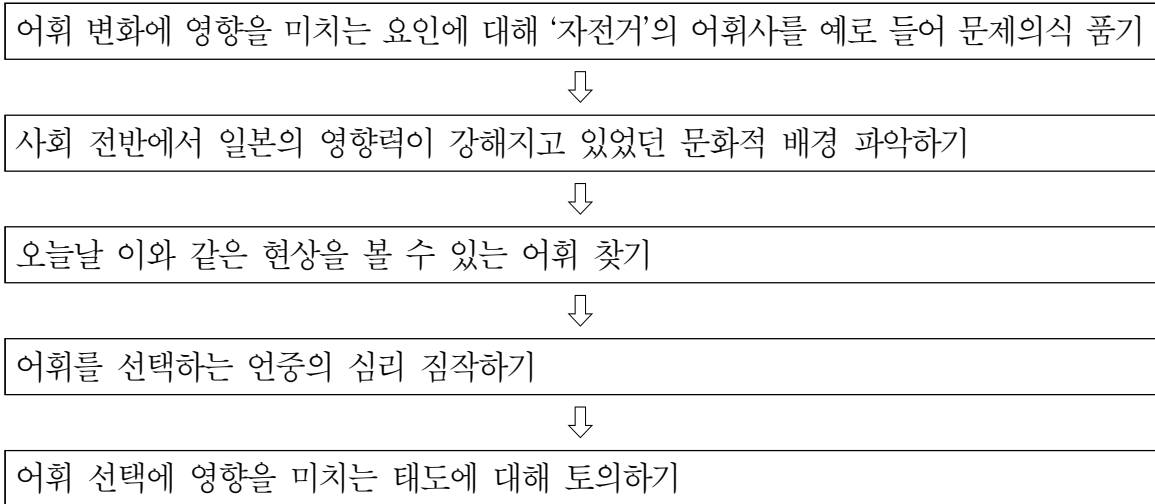
현재는 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행거’를 살려 쓰는 경우<sup>22)</sup>를 제외하고는 ‘자전거’가 일상적으로 쓰인다.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식 한자어가 중국식 한자어를 밀어냈고, 현재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통시적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자행거’와 ‘자전거’가 어떻게 운명을 달리했는지 살펴보고 문화의 수용 및 창조 시 필요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언중이 똑같은 대상에 대한 것이라도 일본 문화의 영향을 더욱 강력하게 받아 일본식 표현이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sup>23)</sup> 이는 <도표 3>에서 제시한 ‘양복’의 어

22) 이기연(2009: 328-329)에서는 이처럼 옛말을 살려 쓰는 경우를 ‘어휘 차원의 확장’과 ‘표기 차원의 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현재의 언어생활에서 ‘즈믄’이나 ‘가람’을 쓰는 경우와 “나 ‘△’ 등의 소실 문자를 쓰는 경우를 각각 전자와 후자의 예로 들었다.

23) 태도 점검과 관련하여 민현식(2003ㄴ: 432-433)을 참조할 수 있다. 민현식(2003)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와 달리 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국어교육의 문화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문화 변동의 시대에 능동적, 창조적 언어문화의 개척자가 되기 위함이다.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균형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국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대차를 극복하고 청소년이 안정적 세계관을 갖추기 위함이다. 대중문화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문화의 위험 속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어 사용 능력 자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휘사 교육과도 연계된다.<sup>24)</sup>

〈도표 4〉 ‘자전거’의 어휘사 교육



#### 4. ‘식사(食事)’의 어휘사 교육

18세기에 ‘밥’을 뜻하는 어휘로 ‘식사’가 나타난다. ‘식사’가 등장하기 전 국어 고유어로는 평칭(平稱)인 ‘밥’과 존칭(尊稱)인 ‘피(>메), 진지, 슈라(>수라)’ 등이 쓰이고 있었다.

- (예 9) ㄱ. 다만 正官은 본디 病身엔 사름이읍더니 언지흔지 오며셔부터 쯤  
알하 食事도 못흐고 안히 누어 인스오매 (改修捷解新語 1:  
41a-42a)
- ㄴ. 그러흐온디 食事도 일절 못흐옵고 안히 누어 인스오니 민망히  
너지느이다 (改修捷解新語 2: 3b-4a)
- ㄷ. 진지하라: 식사 올리라<sup>25)</sup> (빙빙던 3: 22)

24) 이러한 점에서 ‘양복’과 ‘자전거’는 어휘사 교육에서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이 되는 어휘사의 범주화에 대해서는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25) ‘진지하라’에 대한 주석으로 나와 있다.

중국어에는 ‘食事’라는 한자어가 쓰이지 않지만 일본어에서는 쓰이고, <개수첩해신어>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 ‘식사’는 일본식 한자어를 받아들여 쓴 것일 가능성이 있다.<sup>26)</sup> (9ㄱ, ㄴ)의 ‘식사’는 ‘밥’의 뜻이다. (9ㄷ)의 ‘진지하랴’가 ‘식사 올리랴’의 뜻이라는 주석을 보면, 높은 빈도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른 시기부터 ‘식사’가 ‘밥’뿐 아니라 높임말인 ‘진지’를 대체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19세기 말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도 보인다. ‘식사’는 개화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시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 (예 10) ㄱ. 식상 食床 식상 食傷 식스 食事 식셔 疋邊 식성 食性 식성 도  
 타 好食性 (한불자언 415)  
 ㄴ. 식사 食事 식사 飾詐 식상 食床 식송정 植松亭 (국한회어 197)

다음은 현대국어 사전의 ‘식사’에 대한 뜻풀이이다.

- (예 11) 식사03 (食事) [-싸] 활용 정보: 「명사」 끼니로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 식사가 끝나다/저녁 식사로 국수를 먹었다./친구와 식사 약속을 하였다./처음에는 목사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는 등 신문 기자까지 불러다가 사진을 찍고 했는데...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예 11)에서는 ‘밥을 먹음’이나 ‘밥’으로의 예만 나오고 ‘진지’의 대용으로 쓰인 예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언중의 언어생활에서는 아래와 같은 쓰임도 발견할 수 있다.

26) 앞서 살펴보았던 ‘자전거’의 예와도 연관 지어,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예들을 묶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 (예 12) ㄱ. 아버지는 식사 후 나가셨다.  
 ㄴ.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으셨어요?

(예 12ㄱ)은 ‘진지를 드심’의 대응으로, (예 12ㄴ)에서는 ‘진지’의 대응으로 쓰였다. 개화기부터 있었던 용법이 현재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식사하다’의 경우일 때는 사전에 (예 13)과 같이 나와 있고, (예 14)와 같은 쓰임을 흔히 볼 수 있다.

- (예 13) 식사-하다<sup>02</sup> (食事--) [-싸--] 활용 정보: 「동사」 끼니로 음식을 먹다. ㉠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다/식사하러 나가다/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하실까요?/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예 14) ㄱ. 자, 이제 식사합시다.  
 ㄴ. 저 식사하러 갔다 올게요.

(예 13)의 사전 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문은 ‘밥을 먹다’의 의미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예문은 ‘밥을 먹다’보다 조금 더 격식이 있거나 공손한 표현인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진지를 드시다’만큼 높이는 어감은 들지 않는다. 어법상으로도 ‘진지를 드시다’의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다. 이 문장에서 식사를 화자 자신이 ‘함께’ 하는 것인데 국어에서 자신을 높이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 점은 화자 자신이 행동주(agent)에 포함되는 (예 14ㄱ)이나 화자 자신이 행동주인 (예 14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사하다’는 ‘밥을 먹다’보다는 격식적이면서 공손하고 ‘진지를 드시다’보다는 덜 존대하는 문맥에서 쓰인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사하다’는 높임의 정도상 ‘밥을 먹다’와 ‘진지를 드시다’의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식사’가 ‘진지’의 대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듯이, ‘식사하다’도 때로는 ‘진지를 드시다’의 대용으로 쓰인다.

- (예 15) ㄱ. 아버님, 식사하세요.  
 ㄴ. 선생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상과 같이 ‘식사’는 개화기에서의 용법을 이어받아 대부분의 경우에 ‘밥’이나 ‘진지’를 대체할 수 있다. 혹은 ‘밥’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비격식적이며 낮추는 것 같고 ‘진지’라고 쓰기에는 너무 격식적이며 높이는 것 같은 애매한 문맥에서 양자(兩者)의 사이쯤에 해당하는 의미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그 분포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높임법의 약화와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다.<sup>27)</sup> 국어에서, 특히 구어에서 극존칭은 높은 빈도를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

- (예 16) ㄱ. 아버지께서 늦게 퇴근하셨다.  
 ㄴ.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셨다.

- (예 17) ㄱ.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신다.  
 ㄴ. 아버지가 진지를 드신다.  
 ㄷ. 아버지가 식사를 하신다.

---

27) 심사 위원 선생님의 조언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문화(매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사하다’가 ‘밥 먹다’와는 다른 사회적 의미역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예 18) ㄱ. 어디에 사십니까?  
 ㄴ. 어디에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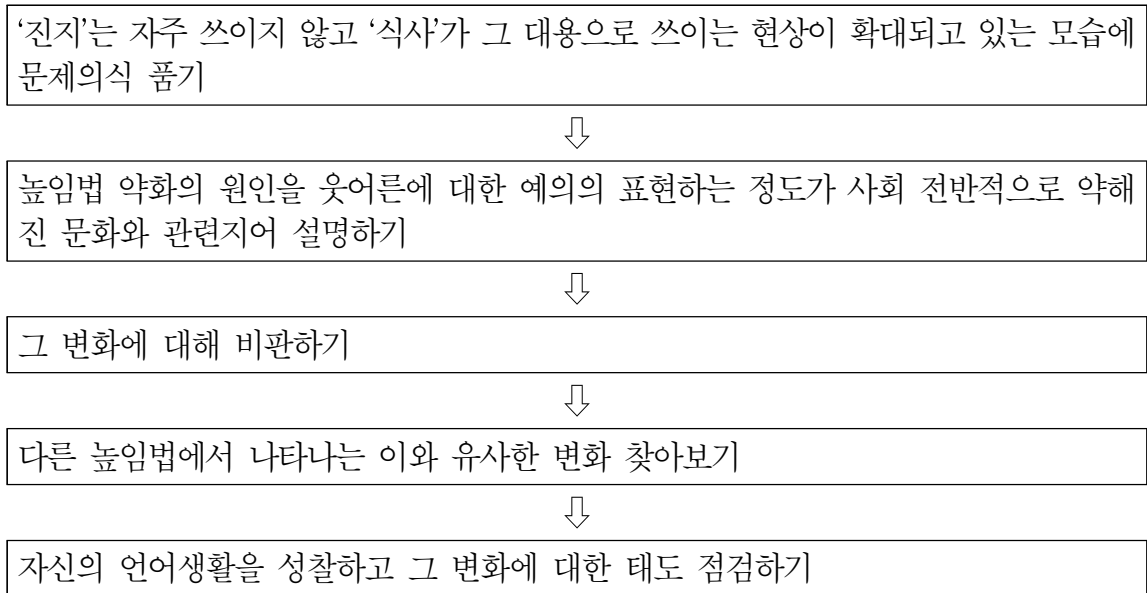
본디 주체높임법에는 조사 ‘께서’와 서술어에 붙는 선어말어미 ‘-시-’가 일치(agreement)해야 하지만 오히려 (16ㄱ)은 이제 잘 쓰이지 않고 (16ㄴ)이 훨씬 많이 쓰인다. 학교문법에서도 어법상 (16ㄴ)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그런데 (17ㄱ)에서와 같이 ‘진지를 드시다’가 쓰였을 때는 ‘께서’와 일치를 이루어야 더 자연스럽다. (17ㄴ)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17ㄱ)보다는 다소 어색하다. 이것은 ‘진지를 드시다’가 최근 더욱 낮은 빈도로 쓰여서 마치 극존칭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사 ‘가’와는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평상시에는 (17ㄷ)과 같은 문장이 흔하게 쓰인다.

게다가 상대높임법에서도 (18ㄱ)보다 (18ㄴ)이 더 자주 쓰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국어는 높임법에서 극존칭이 잘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높임법의 약화라는 전체적인 변화의 일환으로서 ‘식사’가 ‘진지’의 대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욱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이해하게 된다.

높임법의 약화는 웃어른에 대한 예의를 말과 행동으로 갖추는 문화나 경로 우대 사상,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정신 등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문화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를 방관(傍觀)만 해서는 안 된다. 문화가 변하고 있으니 어떤 말의 분포가 점차 좁아지고 심지어 사라져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방치하기만 한다면, 국어 어휘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비판해 보는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언어생활에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다.

〈도표 5〉 ‘식사’의 어휘사 교육



#### IV. 결론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실체인 동시에 사회역사적 산물로서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함축적 공생(commensalisme pregnant) 관계에 있다(R. Galisson, 1990; 김은정, 2008에서 재인용). 국어교육의 목표가 이 점을 무시하지 않는 한, 문화적 내용은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서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본고는 현 국어교육에서 국어 문화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여 국어 문화적 내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어휘사는 그 내용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님을 주장하였다. 국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서 어휘사 교육의 실제로는, 문화적 격변기였던 근대국어 시기의 어휘 중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어휘를 중심으로 해당 어휘의 변화와 그 변화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짚어보

고 교수학습 활동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교육 내용에서 문화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어 문화사 전반에 대한 검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어 문화사의 체계화는 민현식(2003)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이를 지표로 삼아 교육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의 장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문화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국어 문화는 어떻게 범주화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검토가 이루어지면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범주화 역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는 개별 어휘사의 교육에 더 집중하였으나, 이들이 실제로 사용된 텍스트와 함께 교육된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적 다양성의 보고인 방언 자료도 포함한 어휘사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논의는 교육 내용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것은 모든 어휘사가 교육 내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어휘가 문화를 담고 있지만, 그 사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얻는 교육적 효용성이 큰 것들을 선별하여 교육 내용이 될 만한 어휘사의 목록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 이 논문은 2011. 10. 30. 투고되었으며, 2011. 11.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1. 12.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강보유(2004), 「문화언어학과 언어문화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 언어문화학회, pp.1-12.
- 구본관(2005), 「어휘의 변화와 현대국어 어휘의 역사성」, 『국어학』 45, 국어학회, pp.337-372.
- 구본관(2007), 「한국어에 나타나는 언어적 상상력: 중세 한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pp.55-91.
- 구본관(2008),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77-127.
- 김광해(1995),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09-254.
- 김대행(2003), 「한국어 교육과 언어문화」,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157-180.
- 김대행(2006), 「국어생활 · 국어문화 · 국어교육」,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pp.1-30.
-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5-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62.
- 김동환(2002),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pp.1-22.
- 김은정(2008), 「어휘를 통한 프랑스 문화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관(2007),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1): 민족과학 방법의 적용」, 『언어와 문화』 3-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05-126.
- 김주관(2008),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2):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의 적용」, 『언어와 문화』 4-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129-150.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형철(1999), 「개화기 국어 어휘」,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15-162.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

- 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1-142.
- 민현식(2003ㄱ),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pp.202-267.
- 민현식(2003ㄴ),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pp.429-452.
- 민현식(2004),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59-103.
- 박영섭(2002),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한국어의미학』 11, 한국어의미학회, pp.161-176.
-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5-1, 이중언어학회, pp.43-59.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한국어교육학회, pp.23-54.
- 박인기·박창균(2010), 『다문화교육 시대에 되짚어 보는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문화』, 학지사.
- 박창균(2009),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화법연구』 14, 한국화법학회, pp.205-235.
- 박혜진(2010), 「단어형성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기철(2004), 「언어와 문화의 접촉: 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05-123.
- 송철의 외(2007),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명선(2000), 「광고 텍스트의 문화적 의미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3, 한국어교육학회, pp.79-106.
- 신명선(2005), 「어휘 교육 변천사」, 한국어교육학회 편, 『국어교육론 2: 국어문법·기능교육론』, 한국문화사, pp.203-222.
- 신명선(2011),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한국어교육학회, pp.61-101.
- 왕한석(2009), 「한국어 언어문화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2009 세계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 세계한국어문학회, pp.7-17.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연(2009), 「통시적 관점의 어휘 교육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309-341.
- 이문규(2003), 「국어교육의 이념과 어휘 교육의 방향」,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pp.383-402.
-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 이호형(2008), 「국어과 교육에서의 ‘언어문화’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서연(2005), 「한국어 문화적 어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pp.263-284.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조남호(1997), 「근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09-142.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 한상복 · 이문웅 · 김광익(1991),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윤표(1995),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국어학』 25, 국어학회, pp.319-333.
- R. Galisson(1990), *De la linguistique appliquée à la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Paris: Didier Erudition.

## &lt;국문초록&gt;

##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

최소영

본고는 국어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의 설계를 위해서 국어 문화에 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어 문화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방향으로는, 먼저 국어 문화를 범주화한 후 기존의 국어교육 내용을 재편하는 길과 기존 국어교육의 틀은 유지하되 국어 문화적 내용을 보강하는 길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후자로도 문화적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후자의 관점을 택하였다. 이어서 국어 문화의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어휘사 교육에 주목하였다. 어휘사는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실체이므로, 어휘사 교육은 국어의 발전과 문화적 문식성 함양에 기여한다. 교육 내용이 되는 어휘사는 교육 목표에 따라 다양한 범주화가 가능한데, 본고에서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따라 범주화하고, 역사와 문화의 격변기였던 근대국어의 어휘사를 예로 들어 교육의 실체를 보였다. ‘양복’의 예에서는 성차별적 문화를, ‘자전거’의 예에서는 외래 문물 수용에 대한 문화를, ‘식사’의 예에서는 예절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일상생활 속 어휘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언어 변화, 나아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주제어] 국어 문화, 어휘 교육, 어휘사 교육, 양복의 어휘사, 자전거의 어휘사, 식사의 어휘사

<영문초록>

A Research on the Lexical History Education  
as Korean Cultural Education Contents

Choi, Soyoung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n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is not enough now, although the aim of Korean education always includes the statement about Korean culture. It's possible to supplement some contents for cultural education, keeping the area and system of Korean education. Observations in historical changes of vocabularies are taken part in cultural education contents. Vocabularies shows us very good examples of culture, especially lexical history contains amount of excellent samples about certain culture. Lexical history education can lead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literacy. Therefore lexical history education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ulture education. This study is described some lexical history education about very basic materials of life in Modern Korean: 'Yang-bok'(suit), 'Ja-jeon-geo'(bicycle), 'Shik-sa'(meal). Modern Korean lexical histories reflect dynamic movements of history and culture such as today. It's useful that students may be aware of their own language habits and ways of thinking, and eventually they can have an effect on the culture.

[Key words] Korean culture, vocabulary education, lexical history education, lexical history of 'Yang-bok'(suit), lexical history of 'Ja-jeon-geo'(bicycle), lexical history of 'Shik-sa'(meal)